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 년 8 월 2 일

CUOMO 주지사 TECH VALLEY COMMUNICATIONS 사의 합병 및 ALBANY 다운타운에서의 사업 확장 발표

현존 62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6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북부 지역의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가 기업 합병 후 Albany 다운타운에 새로운 기업 본부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Robert Duffy 부지사는 오늘 동 회사 대표들 및 지역내 선출된 공무원들과 함께 이 현지 기업의 확장을 기념했으며, 이 회사는 현존하는 62 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운타운 지역에 6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향후 5 년 동안 3 천 6 백 5 십만 달러의 급여를 지역내 경제에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뉴욕주는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와 같은 회사들에게 뉴욕주가 투자와 사업의 성장 및 확장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 토착 회사로서 주 수도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이며, 주 행정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및 Albany 카운티의 노력으로 인해 계속 수도 지역에 머무를 것입니다. Tech Valley사는 뉴욕주 밖으로 확장할 다른 옵션들이 있었지만, New New York Works For Business(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뉴욕)의 의미를 입증하듯이, 뉴욕주에 머무르는 것 만이 아니라 Albany 다운타운 지역으로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Tech Valley Communications(TVC)사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Tech Valley(신기술 벨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광섬유 네트워크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FirstLight® 광섬유를 건물까지(fiber-to-the-premise) 서비스를 통해 주요 기업체들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사업의 확장과 관련해 회사를 뉴욕주 밖으로 옮기는 등 여러가지 옵션들을 탐색해 보았지만, 결국 Albany 다운타운 지역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광섬유를 한 마일씩 설치할 때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주도적인 광섬유 네트워크를 건설한다는 우리의 목표 성취에 가까워집니다”라고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의 CEO Kevin O’Connor는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우리는 광섬유 하부 구조의 확장에 적응하도록 성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Albany 다운타운 지역의 근로인력을 소중하게

Korean

생각하며, 현지 재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주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리는 사업 규모를 한층 더 신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가 Albany에 창설된 것은 1999 년이었으며, 지난 10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GFC Communications사의 성공적인 취득과 그 후 Mid-Hudson Communications사와의 합병 그리고 2010 년에 TVC사를 이전 주주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취득하여 FirstLight® 광섬유 네트워크를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에 확장시키는 등 지역 내에서의 실재를 증대시켰습니다.

TVC사는 1 년 이상 전에 뉴햄프셔주에 본부가 있고,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매사추세츠주 및 메인주 전 지역에 걸쳐 통신 업체, 도매 고객 및 대규모 기업 고객에게 광섬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egTEL사를 취득한 이래, 미국 동북부 전역에 걸쳐 기업들 및 기타 통신 업체들에 포괄적인 광섬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해 왔습니다.

TVC사는 회사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 지면서 특히 뉴햄프셔주의 유치 시도 이후 사업을 다른 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함해 여러가지 옵션들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2 개의 지역내 TVC사 사업을 통합하여 1 만 5 천 8 백 평방피트의 10 년 임대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2 십 5 만 달러의 보조금을 엠포이어 스테이트 개발국이 제공한다는 제안으로 인해 이 하이테크 통신회사가 Albany 다운타운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의 이러한 중요한 투자는 사업체들이 성공하는 데 그리고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자원을 갖추도록 보장한 우리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라고 엠포이어 스테이트 개발국의 Kenneth Adams 사장, CEO 겸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최첨단 통신 회사가 Albany 다운타운에서 창설되고 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내 근로인력을 위한 큰 성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뉴욕주의 “Tech Valley”가 지역 경제를 강화시킬 회사, 투자 및 일자리를 유치할 충분한 재원 및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을 더 한층 입증해 줍니다.”

주정부로부터의 지원 이외에도, Albany 카운티는 회사의 확장을 장려하고 TVC사가 Albany 다운타운에 본부를 유지하도록 1 십만 달러를 이 회사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Albany 카운티 간부 직원 Dan McCoy는 “Albany 카운티의 산업 개발청(IDA)은 혁신적인 용자를 통해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가 Albany 카운티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시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Albany 카운티가 이러한 일자리들을 보유하도록 그리고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가 사업 성장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한 카운티 산업 개발청과 뉴욕주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erry Jennings 시장은 “우리는 10 년 이상 동안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가 창업사부터 업계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존하는 일자리를

보유하고 60 개 이상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회사의 확장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도 오래동안 Albany 시를 본거지로 삼은 사실을 경축합니다. 뉴욕주의 사업 유치 및 성장을 위한 주지사의 노고와 앰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의 Kenneth Adams 사장 겸 CEO 및 직원 팀의 노고를 비롯해 Albany 카운티의 지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TVC사가 본거지인 Albany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한 CEO Kevin O'Connor의 공약에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il D. Breslin 상원의원은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가 Albany에 계속 남아있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오늘의 발표는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하이테크 업계의 고임금 일자리들은 Albany와 주변 지역들이 새로운 경제의 선두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TVC사가 이 최첨단 업계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장려책을 제공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주지사 및 행정부와 함께 뉴욕주의 경제적 안정 및 성공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n Canestrari 하원의원은 "본고장에서 시작한 회사의 성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며, 특히 자체의 근원에 충실하고 사업 확장에 투자하여 지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실로 미국 동북부의 "Tech Valley"가 되었으며, CEO Kevin O'Connor와 TVC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의사업체 및 연구 기관에 혜택을 주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고무할 것입니다. TVC사가 Albany에 남아있게 하기 위한 Governor Cuomo 주지사, 앰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의 Kenneth Adams 사장 그리고 Albany 시 및 카운티의 노고에 그리고 물론 우리 멋진 시를 본거지로 정한 TVC사의 공약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는 자체의 FirstLight® 광섬유 네트워크를 이용해 광섬유를 건물까지(fiber-to-the-premise) 전자 통신 서비스를 하이테크 제조 시설과 연구 시설, 병원과 의료 시설, 은행과 재무 기관, 전문인 사무실, 학교, 대학, 공공 안전 기관, 현지정부와 주정부를 포함해 주요 기업들과 공공 기관들에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Tech Valley Communications사는 주 수도 지역의 고객 지원을 위한 FirstLight®의 기본 시설에만 1 천만 내지 2 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뉴욕주는 "The New New York Works For Business" 캠페인의 일환으로, 새로운 웹사이트(www.theNewNY.com)를 시작했으며, 이 웹사이트에서 뉴욕주가 제공하는 모든 부문의 사업 보조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세금 공제와 자금 장려책, 국제 무역 및 지역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에서 모든 사업체들이 성공적으로 번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웹사이트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